



차별 없는 법석에서 한국불교 미래를 보다

(無遮法會)



광복70주년 한반도 통일
세계평화를 위한 기원대회

사진으로 보는
'세계 간화선 무차대회'

'광복70주년 한반도 통일과
세계평화를 위한 기원대회 -
세계 간화선 무차대회'의 백
미는 지난 16일 광화문 광장
에서 거행된 '세계 간화선 무
차대회'였다. 30만 불자들이
모여 3시간여 동안 거행된 그
가슴 벅찼던 무차대회 모습을
화보에 담았다.

사진 김형주·신재호 기자



무차대회 현장 이모저모

30만 대중 장엄염불 '한희심'

무차대회에선 전통의식에 맞춰 예불이 거행돼
광화문 광장은 거대한 법당이 됐다. 조계종 의례위
원장인 인목스님의 집전에 맞춰 30만 대중이 합송
하며 울려 퍼진 예불소리는 현장을 불국토로 장식
한 듯 장엄했다. 더욱이 광장 옆에 도열한 사천왕
상 등 장엄물이 호법신장으로 자리를 지켜주고 있
어 엄숙한 분위기를 더했다.

네팔 지진 참사 위로 '눈길'

무차대회 참석대중은 최근 대지진으로 실의에
빠진 네팔 국민들을 위로하기도 했다. 지난 16일 서
울 그랜드힐튼 호텔에서 열린 세계종교인화회의에서
해외 종교지도자들은 진제 종정예하의 제안에 따
라 네팔대지진 희생자를 애도하는 묵념 시간을 가
졌다. 또한 광화문광장에서 봉행된 무차대회 본대
회에선 식전행사로 참석대중이 즉석에서 휴대전화
ARS로 기부를 해 눈길을 끌었다.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 기울여

한반도 통일과 세계평화를 위한 기원대회 및 세
계 간화선 무차대회가 안전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광화문광장 주변에는 경찰과 소방, 의료, 봉사자
들이 배치됐다. 곳곳에 대회를 알리는 안내부스와
의료부스도 10곳에 설치됐다. 100명에 달하는 소
방인력과 구급차 9대가 대기하며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통역 봉사자를 비롯해
행사진행, 안내, 통제 등 3000여 명에 달하는 자원
봉사들도 구슬땀을 흘렸다.

24개 불교종단과 스님들 동참

무차대회에는 이웃종단들도 힘을 보탰다. 한국
불교종단협의회에 따르면 천태종 진각종 관음종
보문종 원효종 일봉선교종 법화종 등 협의회 소속
29개 종단 가운데 24개 종단의 스님과 신도가 대거
참여했다. 이들이 이용한 버스만 318대, 인원은 1
만7323명이었다. 천태종(5005명)이 가장 많았고
법연종(3555명)이 뒤를 이었다. 이는 무차대회가
범불교적 행사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국 불교계 역량 총결집 행사

광복 70주년 한반도 통일과 세계평화기원대회
및 세계 간화선 무차대회는 전국 불교계의 역량을
총 결집한 대회였다. 교구본사를 중심으로 참여 계
획을 수립하고 말사와 신도들을 대상으로 대회 취
지와 의미를 알리며 참여를 독려했다. 본사별로
평균 3000여 명이, 많게는 5000여 명이 넘게 동참
해 한국불교 역사상 최대의 법석을 장엄하며 불교
계의 저력을 발휘했다.

여태동·장영섭·염태규 기자

①세계 간화선 무차대회 무대가 광화문 광장
앞에 마련됐다. ②세계 간화선 무차대회의 첫
걸음으로 종정예하 일행은 광화문에 마련된 세
월호 희생자 분향소에서 극락왕생을 기원한데
이어 유가족들을 위로했다. ③전국에서 동참
한 불자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예불을 올리고
있다. ④무차대회에는 전국의 스님들 1만여 명
이 동참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⑤한반도 통
일과 세계평화를 기원하는 불자들.